

과학교과 관련 도서를 추천합니다.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 초등 3학년 ~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의 단원을 운동과 에너지(물리), 물질(화학), 생명(생물), 지구와 우주(지구과학)으로 분류한 표를 참고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중 **생명 관련 도서**를 소개합니다.

3·6·9 특집호로 체험학습 관련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6호는 박물관 관련도서**로 박물관 견학시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니어김영사에서 나온 “신나는 체험학습시리즈”는 많이 알려진 책이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체험학습 특집으로**
박물관 관련 도서를 추천합니다.



박물관 관련 도서

서지사항	책소개
미리 가 본 국립민속박물관 /심재석/한림출판사/2012	우리 선조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민속 문화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된 책자이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한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내용들을 4개의 챔터(평생의례, 생활문화, 한해살이, 추억의 거리)로 구성하여 미리 보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박물관에서 알 수 없는 상세한 정보까지 실고 있는 이 책을 미리 읽고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제대로 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가 본 국립중앙박물관 /오명숙/한림출판사/2009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을 전시관(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아시아관) 순서를 따라가며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고관에서는 시대별로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관에서는 주제별로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한국사 유물 연표가 들어있어 시대별로 유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어린이 체험박물관1-3 /정인수/문예당주니어/2008	어린이 체험학습박물관 시리즈는 문화해설사와 같은 책이다. 박물관 가는 방법, 운영사항 뿐만 아니라 박물관 곳곳을 자세한 사진과 해설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박물관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책을 들고 읽으며 박물관을 돌아보면 해설사와 함께 견학을 한 느낌이 들 것이다. 세권에 걸쳐 총 15개의 전국 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부록으로 현장체험학습보고서가 들어 있어 견학 후 보고서 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새 교과서에 맞춘 창의적 체험활동백과 시리즈/전근완 외/천재교육/2011	총 1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연체험, 과학체험, 예술체험, 인물체험, 이색체험, 생태체험, 역사체험, 문화체험, 생활체험, 축적체험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부록으로 QR코드가 들어있는 체험학습 카드가 있어 체험 학습 시 가지고 다니며 박물관 안내를 볼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방학 과제가 즐거워지는 우리 박물관 20곳/살림/2008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박물관 체험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박물관 20곳을 마치 가이드와 함께 다니는 것 같이 구성하고 문화, 예술, 과학, 생활, 체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필요한 부분을 미리 학습하면 박물관에서 헤매거나 몰라서 보지 못하고 오는 일을 줄여줄 것이다. 한 권이면 박물관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책 정보 (전집)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푸른아이 / 웅진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교과서가 보이는 자연의 신비 / 교원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두산동아 자연관찰 / 두산동아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비주얼 박물관/웅진	1. 새 3. 동물과 사람의 뼈 6. 연못과 강의 동식물 7. 나비와 나방 11. 포유류 14. 식물 17. 곤충 29. 고양이와 동물 32. 개 41. 양서류 42. 코끼리 46. 고래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5-2. 1단원 우리몸
	초등과학 뒤집기 /성우주니어	20. 소화 23. 뇌 24. 혈액 27. 인체와 질병 34. 미생물 42. 생태와 환경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5-2. 1단원 우리몸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손에 잡히는 과학 교과서 /길벗스쿨	1. 사계절 동식물 6. 식물 7. 인체 12. 곤충 17. 소화기관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2. 1단원 우리몸
	Bravo /을파소	14. 생태계: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공존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신기한 스쿨버스 태미과학동화	17. 먹이사슬의 비밀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맛있는 과학 /주니어김영사	9. 동물 16. 식물 1 17. 식물 2 21. 뇌와 호르몬 23. 인체 43 환경오염 47. 질병과 건강	3-1.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4-1.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5-2. 1단원 우리몸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 전집류는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6학년 과학 교과 중 '생명' 부분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이 알, 저 알 신기한 알! (돈 쿠식, 조앤 오설리번/현암사/2012)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누가 알을 낳을까요 (비르지니 뒤몽/월드 와이즈/2012)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나는 닭 (장 클로드 페리케/청아람주니어/2008)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나비가 좋아지는 나비책 (신유향/다른세상/2012)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위풍당당 우리 삼사리 (허은순/현암사/2012)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애벌레가 들려주는 나비 이야기 (노정임/철수와 영희/2011)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세밀화로 보는 호랑나비 한 살이 (권혁도/길벗어린이/2006)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올챙이는 어떻게 개구리가 될까? (데이비드 스튜어트/캐롤린 프랭클린 그림 /파랑새/2007)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개구리 눈으로 오세요 (여정은/김명길그림/돌베개어린이/2004)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세밀화로 보는 곤충의 생활 (권혁도/길벗어린이/2003)	3-1.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고추: 고추의 한 살이로 들여다본 고추밭 생태계 (정혜경/동그나무/ 2013)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놀면서 배우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교과서 속 식물백과 무엇일까요 (정명숙/키움/2012)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공꾸는 씨앗 이야기(지식의 숲 12) (도은, 여연, 하연/산하/2012)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쓰임새가 많은 꼬마 식물)땅콩의 일생과 역사 (찰스 미쿠치/김영사/2004)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버 (노정임/철수와영희/2012)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신기한 식물일기 (크리스티나 비외르크/미래사/2004)	4-1. 3단원 식물의 한살이
우글우글 미생물을 찾아봐 (최향숙/대교출판사/2008)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꼬물꼬물 세균대왕 미생물이 지구를 지켜요 (김성화, 권수진/풀빛/2007/9500원)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인간의 오랜 친구 미생물 이야기 (외르크 블레히/웅진주니어/2007)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미생물은 힘이 세다 : 서울대 천종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미생물 탐험 (토토 과학상자 22) (천종식, 한정아/토토북/2010)	5-1. 4단원 작은 생물의 세계
식물 PLANT (참 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책빛 편집부/책빛/2011)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숨 쉬고 운동하는 식물의 생활 : 고고 과학특공대 10) (정원상/이치/2007)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산대장 솔뎬 아저씨의 자연학교: 씨앗 속 생명 이야기 (오슬길 7) (솔뎬/사파리/2011)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세상에서 제일 푸릇푸릇한 식물책 (황미라/씽크하우스/2009)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이 좋아하는 식물책 : 씨앗부터 나무까지 (황금돋보기 7) (김진욱/다른세상/2011)	5-1.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어린이 인체박사의 신나는 몸속여행 (구드룬 슈리 지음/영진/2010)	5-2. 1단원 우리몸
 어린이 과학자를 위한 몸이야기 (권오길/봄나무/2011)	5-2. 1단원 우리몸
 인체크로스섹션 (리처드 플라트 지음/진선아이/2010)	5-2. 1단원 우리몸
 뼈 (스티브 쟁키스 지음/논장/2012)	5-2. 1단원 우리몸
 오줌 연구 (아규 겐이치로/비룡소/2012)	5-2. 1단원 우리몸
 심장은 왜 뭘까(사이언스 일공일삼 29) (아규 겐이치로/비룡소/2012)	5-2. 1단원 우리몸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지금당장 시작해! 지구를 살리는 녹색실천 (재키 베일리/아이세움/2010)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처음 만나는 환경교과서 (글렌머피/을파소/2010)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은 초록이 돼요 (김소희 지음/토토북/2009)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생물 다양성 (카트린 스테른 지음/다림/2011)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생태계를 지키는 아이들을 위한 안내서 (김남길/풀과바람/2012)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열두달 환경달력 (임정은 글/길벗스쿨/2011)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우리 학교 환경 지킴이 (이희정 글/아이세움/2012)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이제 우리가 지구를 구해요 (펠릭스와친구들 글/노란상상/2012)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방법 (재키 와인스 글/거인/2008)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지구사용설명서 (우쿠더스지구이주대책위원회 글/한솔수북/2011)	6-1. 4단원 생태계와 환경



박연철

그는 스스로 작가의 소개글을 쓴다. 그런데 그 글이 정말 재미있어 독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내 얼굴은 푸른 수염이 나고 못생겼어요. 나이도 많은데 아직까지 결혼도 못 했지요. 사실 내가 결혼을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책을 읽는 친구를 잡아먹지는 않으니깐요.” (중략)

그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으나 그림을 그리고 싶어 대학 졸업 후 영국 킹스턴 대학 온라인 교육 과정(API: Advanced Programme in Illustration)을 수료했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실험적인 작가주의로 늘 낯설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연철의 다른 책



때루때루
(시공주니어/2013)



피노키오는 왜 엄평소니를 골꺾혔을까?
(사계절/2010)



개미와 물새와 딱따개비
(시공주니어/2007)



어처구니 있는 어처구니 이야기 (어처구니 이야기/박연철/비룡소/2006)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은하

책의 표지를 펼쳐 속표지를 보게 되면 누구나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어처구니 이야기」라는 책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어 혹시 파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 책은 첫 장부터 어처구니없게 시작된다.

어느 곳에 가나 말쑥꾸러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말쑥꾸러기들은 항상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구룡, 저팔계, 손행자, 사화상, 대당사부 이렇게 말쑥꾸러기 어처구니 5총사가 있다. 큰 잘못을 해 놓고 그럴 줄 몰랐다는 등, 너무 불공평해서 그랬다는 등 변명을 하다가 하늘나라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아주 무섭고 뒤틀린 귀신을 잡아오라는 벌을 받게 된다. 무서운 “손”이라는 귀신을 잡으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되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대당사부는 도서관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여 귀신을 잡을 방법을 연구한다. 각 어처구니의 특징을 살려 아주 적당한 방법을 알아낸 대당사부는 어처구니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그러다 결국 소임을 다하지 못한 손행자 때문에 다 잡은 귀신을 놓치게 되어 어처구니들은 궁궐 추녀마루 끝에 올라가서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듣는 옛날이야기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이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작가의 해학을 이해하지 못해 재미없는 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작품 「망태할아버지가 온다」와 「개미와 물새와 딱따개비」를 읽었을 때 그의 해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이야기」를 다시 읽어 들게 되었다. 경북궁 등 조선의 궁궐에 가면 어처구니들이 지붕 끝에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길 줄은 몰랐다. 작가 박연철은 이야기 안에 우리 풍속을 녹여 냈고 어처구니들을 우리 전통 오방색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고구려 벽화, 단청의 무늬를 함께 책에 넣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 이야기,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읽기 포인트

1. 초판과 개정판의 표지 비교
2.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잡아 오라고 할까? 생각해 보기
3. 그림 속에서 전통적인 의미 찾아보기
4. 캐릭터의 특징 살펴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오악, 도깨비다/손정원 글, 유애로 그림/느림출판사/2002
★ 팔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박재철 글, 그림/길벗어린이/2009



구석구석 뜯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박연철/시공주니어/2007)

서울정계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엄마도 아이가 거짓말했다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늦게 잔다고 혼내며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갈 거라고 협박한다. 나쁜 아이를 잡아가 착한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망태 할아버지. 그런 엄마가 아이는 너무 싫다. 엄마의 협박에 화가 잔뜩 난 아이는 결국 엄마에게 “엄마 미워!” 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간다. 그때 스프링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엄마를 잡아간다. 과연 엄마는 어떻게 될까?

이 작품은 박연철이 영국 킹스턴대학 API 온라인 과정을 공부할 때 만든 졸업 작품이다. 당시 지도교수는 검은 그림자가 엄마를 잡아가는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다. 아이들의 동화는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엄마를 잡아가는 것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그림책의 매력이 절반은 더 좋았으리라. 결국 엄마는 등에 망태할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채 돌아온다.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읽으면 읽을수록 알쏭달쏭 숨어 있는 그림이 많다. 『피노키오는 왜 엄평소니를 골꺾혔을까』에서도 거짓말이 나오는 장면에서 피노키오를 숨겨놓았듯 망태할아버지에서는 양호같은 그림이 많다. “엄마는 거짓말을 열 번도 더 했으면서...” 하는 장면에서의 숫자 10, 엄마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백번도 더 보았다고 말한 장면에서의 숫자 100,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아이가 울라서 있는 의자, 잘 시간을 알리는 시계의 시간 등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빼놓고 볼 수 없다.

박연철 작가의 작품들을 놓고 쪽 들여다보면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다. 기발한 생각과 소재들, 창의적인 그림 기법(자신을 소개한 작가소개까지) 등 어느 것 하나 아쉬움이 없는 작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찾지만 전통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 ‘어처구니이야기’에서는 어처구니를 소재로,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에서는 망태할아버지, 피노키오는 왜 엄평소니를 골꺾혔을까’에서는 문자도를, ‘때루때루’에서는 꼭두각시 인형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 우리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알리는 재주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이 책이 품절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품절되었다니 독자로서 너무나 아쉬울 뿐이다.

읽기 포인트

1. 이 작품과 존 버닝햄의 「지각대장 존」,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와 닮은 점 찾아보기
2.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의 변화 찾아보기
3. 불안정한 의자 모습을 통해 아이의 심리상태 알아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각대장 존/존 버닝햄 글. 그림/비룡소/1995
★괴물들이 사는 나라/모리스 샌닥 글. 그림/시공주니어/2002



후쿠다 이와오

지은이 후쿠다 이와오 (福田岩緒)는 1950년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아동출판미술가연맹 회원이며, 따뜻하고 편안한 그림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림책 《덜컹덜컹 달컹(がたんたん)》으로 일본에서 그림책에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에혼니폰상을 받았습니다.

[교보문고 저자 소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빨간 매미/후쿠다 이와오 지음/한영 옮김/책읽는 공/2008)

서울신림초등학교 사서교사 민기연

요란하게 날개 짓 하는 빨간매미, 그 매미를 노려보는 한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궁금증을 안고 책을 펼치자 표지 속 아이가 코를 벌렁대며 땅을 뽀뽀 흘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손을 보니 한 손엔 수학 공책, 다른 한 손은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다. 그리고 아이의 고백이 시작된다.

국어공책을 사러 갔다 우연히 눈에 띈 빨간 지우개를 훔친 이치는 영풍한 수학공책을 사가지고 집으로 온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공책과 빨간 지우개를 바라보는 이치는 괴롭기만 하다. 고우랑 매미 잡으러 나가서는 “숙제 다 했나?”라는 친구의 말에 문구점 아줌마 생각이 나서 죄 없는 매미 날개만 잡아댔다. 아빠와 동생과 함께 하는 목욕도 오늘은 즐겁지가 않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이치는 날개 없는 빨간 매미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쑥 빼내며 원망하는 문구점 아줌마 꿈을 꾸다. 불안이 극에 달한 이치는 결국 엄마에게 사실대로 자기 잘못을 얘기 한다. 그리고 문구점 아줌마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아마 이치와 같은 충동을 가져본 독자라면 『빨간 매미』가 더 와 닿을 것이다. 작가는 불안한 주인공의 마음을 독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림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고, 이치의 표정을 섬세하게 나타내었다. 특히 불안이 최고조인 장면은 확대된 얼굴을 절단 기법으로 표현하여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작가는 실수이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교훈적인 이야기라 자칫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후쿠다 이와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나도록 하였다. 그는 독백하듯 이야기하는 이치의 말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게 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어른들의 행동으로 솔직하게 고백한 이치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책은 어른, 아이 모두가 읽고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기 좋은 작품이다.

읽기 포인트

1.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느껴보기
2. 이치의 표정을 보고 감정의 변화 읽기
3. 매미의 색깔이 왜 빨간색인지 생각해보기
4. 갈등이 해결되기 전과 후에 목소리 톤과 속도 다르게 읽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 거짓말 (지은이와 병관이 5)/고대영/길벗어린이/2009
- ★ 나무도둑/올리버 제퍼스 글/황인빈 역/주니어김영사/2011



후쿠다 이와오의 다른 책



난 형이니까
아이세움/2002



고로아, 형내
아이세움/2007



심부름 기차가
나가신다!
책읽는공/2009



우리 형이니까
아이세움/2010



요코가 방귀 췌대~요

(방귀만세/후쿠다 이와오 지음/김남주 옮김/아이세움/2001)

서울신현초등학교 사서교사 백지혜

아이들은 방귀, 똥이란 단어만 들어도 까르르 웃는다. 이런 방귀에 만세라니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 책을 넘긴다.

교실에 방귀 소리가 울렸다. 아이들 모두 순간 멍청한다. 누가 방귀를 췌을까?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 테츠오는 요코가 방귀 낀 것을 큰소리로 선생님께 이른다. 무안해하던 요코는 선생님께서 누구나 방귀를 낄 수 있고 건강하단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자 결국 울음을 터트린다. 요코의 방귀로 아이들은 방귀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궁금증을 이야기 한다. 장난으로 방귀를 껴다 선생님께 눈물 나도록 꾸중들은 테츠오, 엄마는 방귀를 껴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유지에게 엄마의 방귀 이야기를 해주며 엄마도 방귀를 편다고 안심시켜주는 다케시. 선생님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도 방귀를 껴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방귀를 편다고 알려준다. 아이들의 방귀에 대한 궁금증은 끝이 없지만 선생님은 방귀에 대한 글짓기로 수업을 이어간다. 방귀로 한껏 들뜬 교실에 하얀 나비가 찾아오고 테츠오는 나비도 방귀를 낀다며 요코에게 말을 건네자 요코는 고개를 끄덕여 준다.

저자 후쿠다 이와오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또래의 아이들의 궁금증이나 고민을 소재로 한 책이 많다. 방귀만세 역시 이 또래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궁금해 하는 방귀를 소재로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대화나 아이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귀에 대한 정보와 예절을 알 수 있다.

방귀만세는 페이지를 둘로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페이지의 오른쪽은 이야기의 주요 흐름을 왼편은 요코와 테츠오만을 그려 테츠오의 심리를 얼굴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면을 분할하여 테츠오를 묘사한 그림을 보면 관심을 장난으로 표현한 귀여운 테츠오를 만날 수 있다.

읽기 포인트

1. 테츠오 시선과 요코의 시선 따라가며 읽기
2. 유지 엄마 그림자의 숨은 의미 찾아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 똥벼락/김회경/사계절/2008
- ★ 똥자루 굴러간다/김윤정/국민서관/2010

북토크북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7명의 연구모임입니다(신입직원 중앙초 김유진선생님)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